

아라



언니, 지난번 그 강의 팬분들 질문 엄청 날카롭던데
AI가 미국 빚 문제 해결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

주아



오 좋은 질문. 근데 강사님 답이 딱 한 문장이야

"AI가 진짜다"와 "부채가 풀린다"는 다른 문장이다

오후 9:10

아라



그게 무슨 말이야?

주아



AI 혁명 자체는 진짜고 안 멈춰. 근데 그거랑 미국 빚 문제 풀리는 건 완전 별개래

아라



왜? AI 엄청 빨리 퍼지고 있잖아

주아



맞아, 생성AI가 2년 만에 39% 보급됐어. PC는 3년 걸려 20%였는데

근데 이상한 게, 그럼 생산성 통계도 확 올라야 되잖아?

아라



그런데?

 주아

TFP라는 생산성 지표가 2024년 1.5%에서 2025년 0.8%로 오히려 반토막났대

아라 

어? 그럼 AI가 별 효과 없다는 거야?

 주아

IT 혁명 때도 그랬대. 거의 10년 동안 생산성에 별 도움 안 됐다고

아라 

왜 그런 거야? 그렇게 다 쓰는데

 주아

로버트 고든이라는 교수님 연구가 있는데, 기반 기술이 이미 많이 쌓여 있으면 새 기술 하나의 효과가 작아진대

아라 

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스마트폰도 그랬대?

 주아

맞아, 경제학자들이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거기 시간 낭비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안 올랐다고 평가한대

아라 

전문가들은 뭐래?

주아

이게 또 극과 극이야. 노벨상 받은 아세모글루는 0.07%p만 오를 거래

근데 골드만삭스는 1.5%p까지 본대

아라

와 20배 차이잖아

주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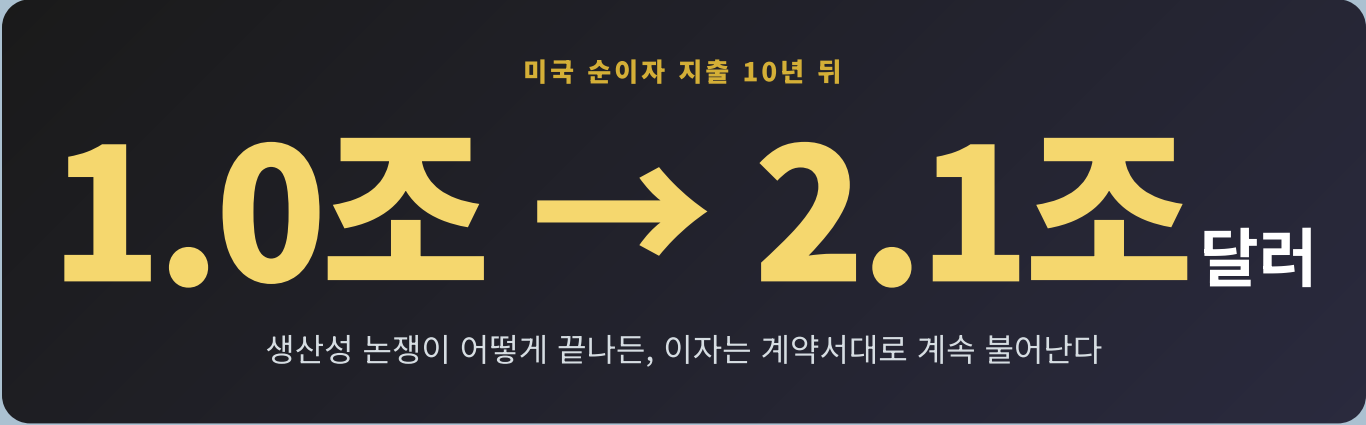
그니까. 아직 아무도 몰라

아라

그럼 빚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?

주아

여기가 진짜 핵심이야. 이자는 계속 늘어나



아라

미쳤다... 왜 이렇게 늘어나?

주아

2031년부터는 이자율이 아예 성장률을 추월한대. 빚이 스스로 자라나는 거지

아라



그럼 AI가 진짜 잘 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?

주아



강사님이 그것도 계산해봤어. 완전 후하게 가정해서

닷컴호황 때 딱 9년 있었던 기록을, 30년 동안 쉬지도 않고
이어진다고 쳐도

아라



그럼?

주아



지금 부채가 GDP 100%인데, 30년 뒤 최선이어도 158%,
금리까지 반영하면 233%

아라



그 정도로 잘돼도 안 풀린다고?

주아



어. **"이자**는 계약서에, **생산성은 논문**에 적혀 있다"가
강사님 표현이야

아라



무슨 뜻인지 알겠다. 확정된 거랑 아직 가설인 거 차이구나

주아



정확해. 실제로 얼마 전에도 있었어 — 2월 20일에

아라

뭐가?

주아

관세가 위헌 판결 나서 미국 정부가 1,750억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

아라

헐 세금 걷었다가 다시 뺏어야 되는 거야?

주아

"세입은 법원이 지워도, 이자는 누구도 못 지운다" — 이게 그 사건이 보여주는 거야

아라

미국이 예전에 흑자였던 적은 없어?

주아

딱 4년, 1990년대 후반에. 근데 그것도 성장 하나로 된 게 아니었어

성장(인터넷)+정치(증세)+인구(베이비부머 한창 세금 낼 때) 삼박자가 맞았던 거야

아라

지금은?

주아

정치는 감세, 인구는 베이비부머 은퇴. 두 박자가 정반대로 돌고 있어

아라



그럼 AI가 성공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야?

주아



그것도 딜레마가 있어. 크게 두 갈래인데

인플레형(전력·구리 많이 써서 물가 오름) 아니면 디플레형
(물가 내려가는데, 그러면 빛의 실질가치가 커짐)

아라



둘 다 문제네

주아



그래서 강사님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다 계산했는데

단기채는 4개 시나리오 다 이겨. 장기채는 제일 좁은 회랑
하나만 이겨

아라



그럼 우리가 지켜볼 지표는 뭐야?

주아



3층으로 본대 — 1층 진짜 생산성 오르는지, 2층 AI기업이
세금 더 내는지, 3층 재정 흑자로 가는지

아라



한 번에 판단 안 해?

 주아

응, 분기 하나로 판단 안 한대. 올해 1분기 0.3%라는 낮은 숫자 하나로 성급하게 결론 안 내리겠다고

아라 

그럼 결론이 뭐야?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?

 주아

세 번째 질문이 딱 그거였어 — 그래도 대비는 유지해야 하냐고

강사님 답: **"네, 당연하죠"**

아라 

오

 주아

바벨 전략은 AI 반대 베팅이 아니라 어느 쪽이 이기든 살아남는 구조래

아라 

아 근데 나도 물어볼 거 있는데

 주아

뭔데?

아라 

나 이사 자금 몇 달 뒤에 쓸 돈 있는데, 국채 금리 올랐다는데 채권 사도 돼?

 주아

오 완전 두 번째 질문자랑 똑같은 상황이네

일단 치솟은 건 '긴' 금리야. 짧은 자리는 사실 조용해

아라 

짧은 거 긴 거가 다른 거야?

 주아

한국 CD 91일물 2.94%, 미국 3개월물 3.6% — 이건 조용한 동네

치솟은 건 10년물 — 한국 4.2%, 미국 4.5%, 18년 만에 최고래

아라 

왜 차이가 나?

 주아

짧은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고, 긴 금리는 시장이 정해

아라 

그럼 내 이사자금은 뭘로 굴려야 돼?

 주아

몇 달 뒤 쓸 돈이면 그냥 원화로 유지하는 게 나아

아라 

왜? 달러가 낫지 않아?

 주아

환전 왕복 비용도 들고, 3개월 뒤 환율은 아무도 몰라.
금리차 0.4%p 벌자고 태울 이유가 없대

아라



그럼 달러는 언제 쓰는 거야?

 주아

2~3년 이상 굴릴 돈이거나 미국 주식 살 대기자금이면
그때는 달러가 정답

아라



그럼 원화로는 뭐가 좋아? 그냥 예금?

 주아

파킹형 ETF라는 것도 있어. CD금리형 이런 거

아라



그게 예금보다 나아?

 주아

금리는 거의 똑같아. CD91일물 2.94% vs 예금 2.92%

아라



그럼 별 차이 없네

 주아

3천만원 3개월 굴리면 세후로 딱 천 원 차이야. 18.6만원
vs 18.5만원

아라



그럼 뭐가 다른 건데?

설마 세금이 달라?

주아



아니 세금도 똑같아, 15.4%. 매매수수료가 있긴 한데
그것도 왕복 0.015%라 얼마 안 돼

진짜 승부는 유동성이야. 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 대부분
날려

근데 파킹형 ETF는 아무 때나 팔아도 그날까지 이자를
그대로 챙겨

아라



오 이자 날짜 바뀌어도 손해 안 보겠네

주아



정확해. 기초자산이 국채면 안전성도 충분하대

아라



장기채는 아예 사면 안 되는 거야?

주아



강사님은 반대래.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
모르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지

아라



그럼 결국 짧은 걸로 굴리는 게 맞네



주아

어, 적어도 지금은

강의가 남긴 정리

- 01 바벨 대비 유지
— 강사가 직접 밝힌 권고, 어느 쪽이 이기든 살아남는 구조
- 02 이사자금은 원화 유지
— 몇 달 뒤 쓸 돈은 환전하지 말 것(강사 명시 권고)
- 03 장기자금은 달러 가능
— 2~3년 이상 자금·미국주식 대기자금이면 달러 국채 가능
- 04 파킹형 ETF
— 기초자산 확인 후 정기예금 대안으로 고려 가능

아라



오늘도 진짜 도움 많이 됐다

다음 강의는 뭐야?



주아

2강 '3,000배의 법칙'! 1997년에 편지 쓴 회사 주가가 30년 뒤 3,000배 됐대

아라



1,000만원이면 30억?



주아

아니 300억

아라



미쳤다 ㅋㅋ

주아



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

아라



좋아 기대할게